

주택대출금리 0.19~0.21% 또 내려

신한·국민銀 2주만에... 변동금리, 다시 고정금리 아래로 금리 인하 움직임 다소 주춤... 시중 돈 은행권 집중 여전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고정금리형 대출 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은행권의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의 인하 움직임은 다소 주춤하면서 시중자금의 은행권 집중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3개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18일 기준으로 6.31~7.71%로 집계됐다. 이는 설 연휴 전인 지난 4일에 비해 0.21%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3년 고정금리형 대출금리는 6.42~7.82%로, 0.07% 하락에 그쳐 변동

금리보다 0.11%포인트 높아졌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금리역전 현상이 한 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주택대출의 고정금리가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간 1.41% 급락하면서 지난 4일 변동금리를 0.03%포인트 밑도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민은행도 주택대출 변동금리가 5.97~7.57%로, 최근 2주간 0.19% 떨어지면서 고정금리보다 0.08%포인트를 밑돌았다. 국민은행의 변동금리는 지난달 28일 고정금리를 0.08%포인트 웃돌

았지만 지난 2일 같은 수준으로 복귀한 뒤 이번 주들어 재역전됐다.

반면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 인하는 움직임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번 주 초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지난주 수준인 최고 5.60%를 유지키로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최고금리를 5.80%와 5.70%로 유지했다. 다만 이들은 은행은 향후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수신금리의 인하 속도를 늦춘 것은 향후 금리 추이를 예측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자금유체 쪽으로 영업전략의 방향을 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유자금에 있는 경우 미리 적당한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최근 예금금리의 인하 추세가 주춤하지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기 금변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금리인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반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변동금리 대출만 선호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인하 여파로 최근 단기간에 금리가 급변하고 있지만 장기 대출자에 예금자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韓銀 정책금리 조속히 내려야” 금융연 연구위원

한국은행이 조속한 시일 안에 정책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17일 ‘국내의 금리차 확대와 통화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금리차 확대에 의한 외국인의 채권 매수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기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나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 간 정책금리 차이가 2.0%포인트로 확대되면서 외국인 채권 매수가 급증, 외국인 보유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12월말 17%인 외국인 보유 비중은 올 1월말 기준 4.9%이며 외국인의 하루평균 채권 순매수 금액도 2006년 72억원에서 올 1월에는 1천543억원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금호 ‘동진정책’ 시동 전국 기업 도약하나 부산국제항공 대주주 참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산국제항공에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명실공히 국민의 기업으로 자리 잡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의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14일 부산국제항공을 위탁경영하기로 한 것은 ‘동진 정책’을 통해 ‘전국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많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금호아시아나가 오래전부터 영남 지역 공략을 준비해 오던 차에 마침 부산국제항공을 운영하기로 했던 대만 부흥항공이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아시아나항공이 차고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세계 7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영남에 든든한 사업기반이 없는데도 호남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영남지역에서 금호타이어 제품이 팔리지 않고 금호렌트카도 고전을 하는 등 어려움 많았다. 영남지역에서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아파트 정도만 알려져 있을 정도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는 이번에 부산지역 기업인들과 손잡고 부산국제항공을 출범시키고, 최근 대한항공 인수로 부산항을 통한 항만사업에도 진출해 영남지역에서도 기여를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경우 자회사로 부산김만중컨테이너터미널, 마산항 제4부두운영, 울산항만운영 등이 있어 금호아시아나로서는 영남지역과 연대감을 더욱 넓힐 수 있다.

/연합뉴스

“휘발유 유류세 또 내려도 OECD국보다 훨씬 높다”

현대경제연구원 지적

유류세를 인하해도 한국의 휘발유값이 OECD 주요국보다 높아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휘발유 가격 안정, 교통세 인하로 충분하냐’라는 보고서에서 원유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국외의 현행 교통세를 12.7% 추가 인하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교통세 인하에 따른 정부 세수의 경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휘발유 소비량 증가를 반영했을 때 지난해 정부 예산의 0.38%인 7천655억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교통세를 내리더라도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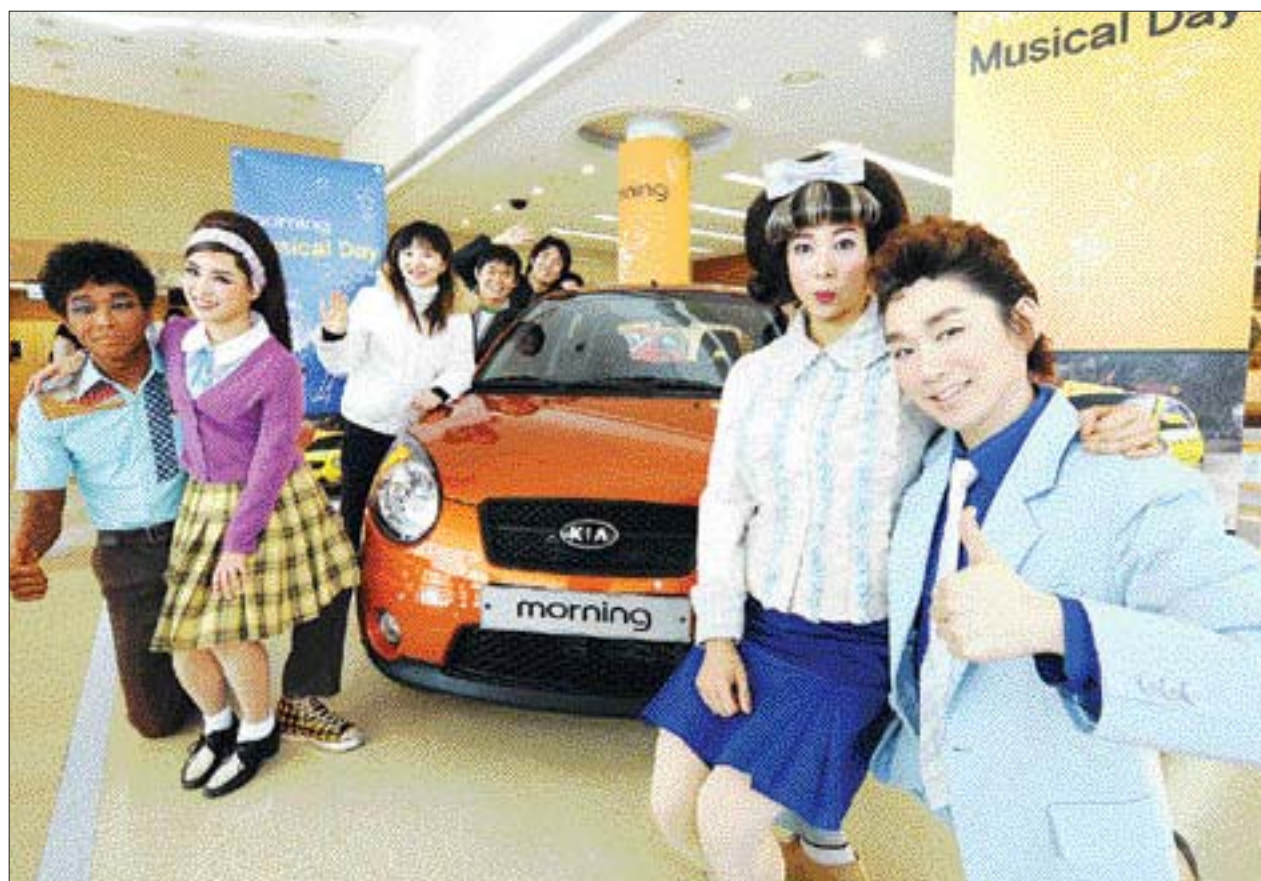
의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2007년 1~4분기 기준 교통세를 12.7% 추가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의 평균 휘발유가격은 1천319.18원으로 OECD 주요 국가인 일본의 1천76원, 캐나다의 753원, 호주의 856원, 미국의 586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같이 교통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소비자가 가격이 OECD 국가들보다 여전히 높은 이유는 휘발유의 세전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배럴당 51.8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이후 월평균 4.69%씩 상승해 지난해 12월에는 85.7달러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기아 ‘뉴모닝 뮤지컬 데이’

뮤지컬 ‘헤어스프레이’에 출연중인 배우들이 기아차 모닝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16일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뉴모닝 구입 고객과 이벤트 참여 고객 등 800여명을 ‘헤어스프레이’에 초청, 뮤지컬 데이를 가졌다.

(기아차 제공)

올 600대 기업 92조 투자 기업친화적 정책... 2004년 이후 최대

전경련, 552개社 조사 올해 600대 기업의 투자가 작년에 비해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6년말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금융·보험사 제외) 가운데 55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투자액은 모두 92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4.0%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전경련이 실시한 투자계획 조사에서 벤처 붐이 일었던 2000년의 24.3%, 2004년의 18.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발전소 준공 등으로 투자가 저조한 한국전력 계열의 발전회사 등 공기업은 제외한 민간기업들의 투자증가율만 보면 16.4%로 더욱 높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5.1%, 비제조업이 12.6%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세부업종별로는 1차금속,비금속광물(49.3%), 목재·가구(43.0%), 조선·기타운송장비(38.9%), 화학(33.1%) 등의 예상 증가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섬유·의복·신발(-29.7%), 정유(-10.2%), 조립금속·기계·정밀기기(-9.4%) 등의 투자는 줄어든 전망이다.

한편 작년 600대 기업의 투자실적은 81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는 데 그쳐 3.2%가 증가했던 2002년 이후 5년만에 한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미분양 아파트 급증 탓 청약통장도 인기 ‘시들’

1월 광주·전남 가입자 2,800명 감소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의 여파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광주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 가입자는 10만1천1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말 지난해 12월(10만2천973명)에 비해 1천818명(1.8%) 감소한 것으로, 1년새 8천605명(7.8%)이나 줄었다. 전남도 청약통장 가입자가 6만8천180명으로, 1달새 993명(1.4%) 감소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최근 미분양 주택급증 등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청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전남의 경우 2006년 말부터 미분양주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현재 1만8천여가구의 미분양이 쌓여있다.

이같은 사정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684만1천487명으로, 1달새 7만507명 줄었다.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0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2006년 4월에는 728만3천명까지 늘어났으나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인해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7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또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청약통장의 유무와는 별개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높아진 것도 청약 저조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1만가구를 돌파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공공주택의 미분양도 지난해 말 현재 1천539가구에 달하면서 수요자들의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산 소형차, 탑승자 하체 보호 취약”

다리·발 등 충돌시 안정성 3, 4등급 받아

국내 소형 승용차들은 충돌 사고 때 탑승자의 하체를 잘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국내 소형 승용차 4개 차종에 대해 안전성과 수리성(수리하기 쉬운 정도)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평가 대상 차량은 베르나(현대), 프라이드(기아), 젠트라(GM대우), 뉴 SM3(르노삼성) 등 4종이다.

안전성 평가는 시속 64km로 달다가 차량 전면의 40% (운전석 쪽)가 ‘충돌 변형 벽(ODB, Offset Deformable Barrier)’과 정면 충돌하는 미국 고속도로안전협회(IIHS) 방식으로 실시됐다. ODB란 단단한 벽과 달리 충돌하면 자동차처럼 찌그러지는 성질을 가진 금속 재질 장애물로, 운전석자리 부딪치는 실제 자동차 충돌 사고와 가장 유사한 상황을 실험한 것이다.

실험 결과 종합적인 안전성(탑승자 보호 성능)은 4개 차종 모두 2등급(총 4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신체 부위별 안전성에서 머리와 목, 가슴은 모두

■차종별 안전성 등급

구분	베르나	프라이드	젠트라	뉴SM3
인체 상해 위험도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가슴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왼쪽 다리/발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오른쪽 다리/발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차체 구조 안전도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인체모형(드미)의 움직임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최종 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국가별 신차 충돌시험 평가기준

구분	한국	북미	유럽	호주	일본
인종 제도	사후 인종	사후 인종	사전 인종	사전 인종	사전 인종
시험 기준	56km/h 고정벽에 정면 전격기 충돌	56km/h 고정벽 전격기 충돌	64km/h, 40% ODB	64km/h, 40% ODB	56km/h 고정벽 전격기 충돌
신체 부위	민간 단체	민간 단체	민간 단체	민간 단체	민간 단체
등급	4등급/40% ODB	4등급/40% ODB	-	-	-

1~2등급을 받은 데 비해 다리와 발은 3, 4등급을 받은 차종도 있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5	062-940-3000
영풍문고	영풍문고 광주점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2/18	062-364-0210
영빅이트	2008년 매장관리직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2/19	062-650-2203
느낌하나	웹사이트관리 및 경리 카운터 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2/20	062-574-1193
빈출골프	정규직 매장관리(의류판매)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0	062-360-1333
남해종합개발	경리사원 모집(건축/기계/안전/전기/소방/관리/경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2	062-220-2514
㈜드림랜드	일본여행사 내근직, 현지 가이드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2	062-227-4404
AIG손해보험	[AIG순천 CS센터]제4기 인바운드 상담원(CSR)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2	061-906-7632
도시종합건설(주)	경리총괄업무 직원을 모집합니다.	초대졸/경력2년	1600~1800	02/23	062-651-5900
경진테크	[생산직]도장/포장/검사 하실 남/여 정규직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2/26	062-946-2422
하나파이낸셜어드바이저	하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신입/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2-226-1601
㈜나경인터내셔널	무동파크호텔 조리부 (양식조리사)	고졸/경력10년	회사내규	02/29	062-231-1571
원앤원(주)	광주 점포개발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초대졸/경력3년	2600~2800	02/29	063-961-5353
효인요양병원	직업치료사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2/29	062-720-1109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

로또복권 (제27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7 9 12 27 39 43	28	9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 수
1	6개 숫자 일치 1,104,622,800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2,485,493	39
3	5개 숫자 일치 1,209,442	1,370
4	4개 숫자 일치 52,419	63,219
5	3개 숫자 일치 5,000	1,017,199

팝콘복권 (제95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조 310402
2	2조	128365
3	1억	5조 695715
4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5	50만	각조 39793
		각조 4513
		각조 52
6	2천	각조 66
		각조 70
		각조 3
7	1천	각조 5
		각조 8